



국립민속국악원이 28일 오후 8시 남원시 사랑의광장 야외무대에서 계절별 절기공연으로 '한여름 칠월칠석, 은하수' 국악콘서트를 선보인다. 사진은 지난 해 열린 국악콘서트.

국악으로 '칠석' 을 맞이해볼까?

국립민속국악원(원장 박호성)은 계절별 절기공연으로 '한여름 칠월칠석, 은하수' 국악콘서트를 선보인다.

오는 28일 오후 8시 남원시 사랑의광장 야외무대에서 펼쳐지는 이번 공연은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 칠월칠석 세시풍속을 기념하고자 마련된다.

국립민속국악원 기악단은 이날 공연에서 관소리와 민요를 관현악연주로 들려준다. 국악 관현악의 대표격인 곡들을 선정해 여름밤을 신명난 국악 선율로 물들일 예정이다.

공연의 첫 곡은 우리나라 대표 민요인 아리랑을 주제로 한 '아리랑 환상곡'으로, 북한 작곡가 최성환의 서양관현악곡을 국악관현악곡으로 편곡했다. 이 곡은 뉴욕 팔하모닉 오케스트라의 로린 마젤이 평양에서 공연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졌다.

이어 기악단 지도단원 김승정(방아타령을 주제로 한 해금협주곡)과 창극단 단원 정승

▶ 국립민속국악원, 28일 남원시 '한여름 칠월칠석, 은하수' 콘서트

기악단 공연서 판소리·민요 관현악연주로 들려줘
남원소년소녀합창단 특별출연

희·김송(남도민요 '꿈이로다, 꿈이로다')의 협연무대가 펼쳐진다. 특별출연으로 남원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무대에 올라 '견우직녀' '아름다운나라'를 들려준다.
남원시립소년소녀합창단은 2006년 창단 이래 정기연주회, 찾아가는 음악회 등 지역사회를 위한 꾸준한 공연활동을 하고 있으며, 지난해 2월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열린 '세계 어린이 문화예술 축제'에서 큰 찬사를 받은 바

있다. 백대운 작곡 '남도아리랑'은 '진도아리랑'의 남도 육자배기 선율과 '밀양아리랑'의 메너리 가락이 함께 연주되는 곡으로, 곡 중간에 활기찬 타악연주가 돋보인다.
곳거리·동삼풀이·별달거리·휘모리장단이 어우러진 이준호 작곡 '축제'는 장단을 쉽고 재미있게 연주함으로써 축제 분위기가 한껏 느껴지는 곡이다.

공연의 대미는 원일 작곡 '신밧놀이'가 장식한다. 곡은 경기민요 뱃노래의 선율에 다양한 전통장단 리듬을 얹은 곡으로 리듬과 속도를 달리해 다채롭게 변주된다.
이날 지휘는 국악과 양악을 넘나들며 새로운 시도로 음악의 장르를 넓혀가고 있는 청주시립국악단 예술감독겸 상임지휘자인 조정수가, 사회는 편안하고 푸근한 목소리의 소유자 조옥선 지도단원이 맡는다.

/정해은 기자

남원시, 전통놀이 전문지도사 키운다

1급 자격 양성교육 내달부터 11월까지 진행

남원시는 오는 9월부터 ~ 11월까지 합과우 소리체합관에서 '전통놀이전문지도사 1급 자격 양성교육' 과정을 진행한다.

이번 전통놀이전문지도사 양성 자격 교육과정은 전라북도가 후원하고 남원시가 주최, (사)전통문화콘텐츠연구소 연에서 주관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전통놀이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전통놀이 지도사로서 전문성을 갖출 기본 능력과 자질을 키우는 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사라져가는 역사적 고증을 통한 전통

놀이문화의 교육, 체험을 통해 우리의 소중한 전통놀이문화를 계승 발전하는 계기가 마련될 전망이다.

(사)전통문화콘텐츠연구소 연 김소영 대표는 교육 프로그램은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전해져 내려오는 전통놀이와 역사 이야기, 전래놀이, 민속놀이(24절기 세시풍속)등을 포함하여, 교과연계 놀이학습과, 전통예절까지 배우는 유익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며, 전통놀이 교육에 필요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전통놀이

를 지도할 수 있는 전통놀이 전문강사 3급, 1급(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록허가) 통합 교육과정으로 강의와 현장 실습 병행으로 재밌고 유익한 시간으로 진행 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전통놀이문화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수강이 가능하며 신청접수마감은 8월 22일까지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norion.co.kr) 참고 및 네이버에 '노리연'으로 검색 하면 홈페이지에 접속 가능하다.

/남원=유영철 기자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물 흐르다, 결 잇다'... 생활문화인들 한자리에

전북문화관광재단, 내일 덕진공원에서 '물결축제' 개최

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 이사 이병천)은 19일 토요일 오후 3시부터 덕진공원에서 생활문화 물결축제 '물 흐르다, 결 잇다'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재)생활문화진흥원이 주최하는 '문화가 있는 날' 생활문화동호회 활성화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축제는 주민 추진위원회가 직접 기획한 프로그램에 따라 진행되며, 공연 25팀, 체험 11팀, 프리마켓 4팀 등 도내 14개 시·군의 생활문화동호회 40개소 참여해 풍성한 볼거리와 체험거리를 선보인다.

생활문화동호회 활성화 지원 사업은 지역주민과 생활문화동호회가 함께 어울려 즐길



수 있도록 문화예술프로그램 및 축제를 지원, 자발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확산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축제를 포함해 총 3회차로 구성된 사업은 이에 앞서 6월은 진안에서, 7월은 김제에서 원탁회의 및 교류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정해은 기자

전주부채문화관, 한글서예 '바람동아리' 수강생 모집

전주부채문화관(관장 이항미)은 한글서예 '바람동아리' 하반기 수강생을 모집한다.

'바람동아리'는 우리전통문화의 한 장르인 서예교육 커뮤니티 모임으로, 부채문화관은 올 3월부터 전주시민을 대상으로 서예수업을 진행해 왔다.

이번 강좌는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과정으로 진행되며, 붓잡기·자세잡기·용필의 원리 등 서예기초와 한글 문장쓰기로 구성된다. 연

말 수업은 부채 선명 및 서예작품을 전주부채문화관 기획전시실에서 전시하여 서로의 작품을 평가하는 시간을 갖는다.

수업은 진창훈 강사의 지도로,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전주한옥마을 내 전주부채문화관에서 열린다.

수강료는 6만원이며, 서예에 관심 있는 성인 15명을 오는 30일까지 선착순 모집한다.

/정해은 기자

꿈나무 그림쟁이들, 무주로 오라

'최북 그림그리기 대회', 내달 1일 무주반딧불축제장서 참가 원할 시 25일까지 반딧불축제 홈페이지 등서 신청

무주반딧불축제와 함께 하는 2017 전국 환경예술대전 '최북 그림그리기 대회'가 내달 1일 10시에 반딧불축제장에서 개최된다.

참가를 원하면 오는 25일까지 무주반딧불축제 홈페이지(www.firefly.or.kr - 전국 환경예술대전-그리기 대회)에서 접수를 하거나 신청서를 내려 받아 보건의료원 5층 보건행정과로 방문 접수하거나 우편(전북 무주군 무주읍 한풍루로 413 보건의료원 보건행정과)과 팩스(063-320-8239)를 이용해 접수하면 된다.

2017 전국 환경예술대전 '최북 그림그리기 대회'는 전국의 유치원과 초·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대상(최우수반디상) 2명에게는 환경부장관상이 수여되며

12명에게 금상(전라북도지사상)과 은상(무주군수상), 동상(무주교육지원청 교육장상), 장려상(무주반딧불축제제천위원장상)이 주어질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올해는 우리 군이 나온 조선시대 최고의 화가 최북 선생의 이름을 건 대회로 진행을 한다"며 "어린이들이 그림을 통해 환경의 소중함을 공유하고 반딧불축제를 기억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한편, 무주군은 8월 26일부터 9월 3일까지 반딧불축제장 내에 지난대회 작품들을 전시할 계획으로, 참가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기회도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취득세 0원

보험료 0원

자동차세 0원

초기비용 0원

“자동차 이젠 소유에서 사용으로”

신차 장기렌터카.오토리스 전문업체

“월사용료는 전국 최저 가격”



대표 이영근



국산차.수입차 전차종 신차 장기렌트.오토리스

전국 어디든 상담가능!!
지사 개설 문의

대표전화 : 1600 - 2542

 **스페셜오토리스.렌터카**